

2026. 2. 9.(월)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2월 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2쪽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02-2133-8305
도시계획혁신 팀장	서준원	02-2133-8326
도시계획 홈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http://urban.seoul.go.kr/ 상단<알림마당> → 위원회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 금일 처리 안건 : 총 6건

○ 수정가결 : 6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의결과 1부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상정안건

【 2026. 2. 6 (금) 15:00, 서소문2청사 12층 대회의실 】

■ 총 6건 (수정가결 6)

연번	안건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
1	〈공동주택과〉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 역 지정·경관심의(안)	○ 위 치 : 용산구 이태원동 22-2(48,800㎡) ○ 내 용 : 이태원동 22-2번지 일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에 관한 사항	수 정 가 결	〈신규상정〉 재건축지원팀 팀장 : 김 훈 담당 : 양성인 (2133-7299)
2	〈주거정비과〉 미아동 791-288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경관심의(안)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91-2882(132,188.1㎡) ○ 내 용 :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에 관한 사항	수 정 가 결	〈신규상정〉 공공지원실행팀 팀장 : 문한성 담당 : 박병규 (2133-7203)
3	〈주거정비과〉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 위 치 : 동대문구 장안동 134-15 (67,951.8㎡) ○ 내 용 :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에 관한 사항	수 정 가 결	〈신규상정〉 재개발관리팀 팀장 : 장도영 담당 : 장다운 (2133-7189)
4	〈주거정비과〉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 위 치 : 도봉구 쌍문동 81 (68,735.5㎡) ○ 내 용 : 쌍문2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에 관한 사항	수 정 가 결	〈신규상정〉 주거사업협력센터 팀장 : 오종규 담당 : 김정환 (2133-7857)
5	〈공동주택과〉 반포미도2차아파트 재건 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60-5(18,864㎡) ○ 내 용 : 반포미도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에 관한 사항	수 정 가 결	〈신규상정〉 재건축사업팀 팀장 : 엄태용 담당 : 곽지연 (2133-7286)
6	〈공동주택과〉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 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 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 정·경관심의(안)	○ 위 치 : 강남구 대치동 63(54,358.4㎡) ○ 내 용 : 대치동 63번지 일대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에 관 한 사항	수 정 가 결	〈신규상정〉 재건축계획팀 팀장 : 임동수 담당 : 김한형 (2133-7137)

2026. 2. 9.(월)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2월 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02-2133-713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공동주택팀장

김훈

02-2133-7132

청화아파트, 한강·남산 경관 품은 주거단지로 재탄생

- 용산구 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거쳐 ‘수정가결’
- 한강과 남산을 잇는 중심지로 한남동 개발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기대
- 구릉지 특성을 반영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총 679세대 주거단지로 재편

☐ 청화아파트가 재건축이 확정돼 한강과 남산 경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679세대 고품격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 서울시는 2월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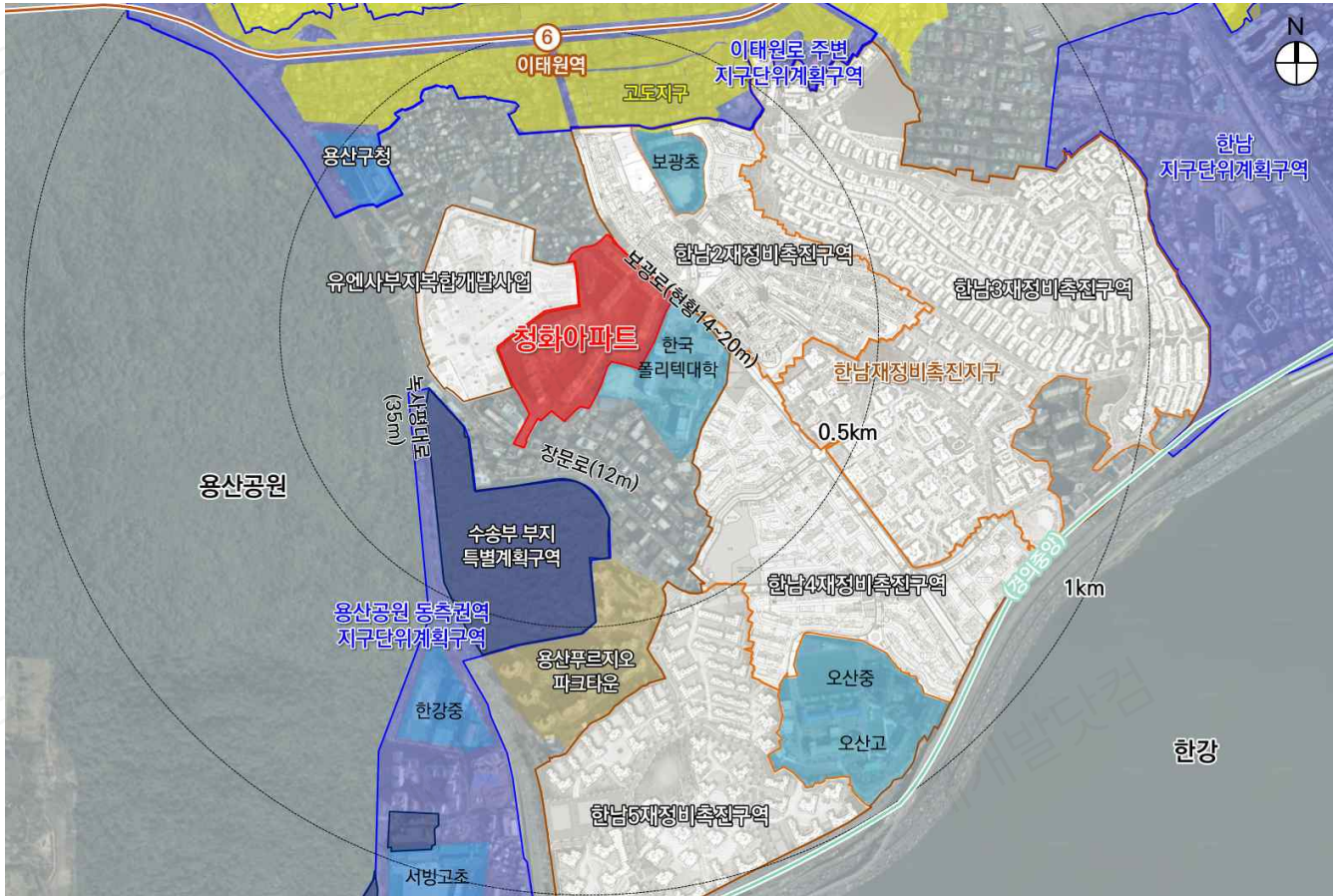
☐ 이번 정비계획은 한강과 남산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한남동 재정비촉진사업, UN사부지 개발사업, 용산공원 조성사업 등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한남 지역의 높이기준을 준수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형순응형 배치, 보행체계 마련, 가로활성화로 주거환경 대폭 개선>

- ☐ 이로써 청화아파트는 1982년 준공된 이태원동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 단지에서 최고 21층, 공동주택 679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 ☐ 대상지가 구릉지에 위치한 특성을 고려해 지형을 따라 건물을 배치해 경관 영향을 줄이고, 수직 보행동선과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확보한다.
- ☐ 또한, 한남·이태원 일대 중심가로인 보광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집중 배치한다. 인근 정비사업지 및 생활 인프라와 연계한 가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함께 높일 전망이다.
-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화아파트는 한강과 남산이 만나는 중요한 입지다. 이번 계획으로 양질의 주택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주거 단지를 조성해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1부. 끝

□ 위치도 (용산구 이태원동 22-2번지 일대)



□ 조감도 (용산구 이태원동 22-2번지 일대)



2026. 2. 9.(월)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2월 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02-2133-7190

공공지원실행팀장

문한성

02-2133-7201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고도지구 규제완화 적용 첫사례...미아동 일대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 강북의 대표적 고도지구 규제지역 미아동 일대, 도심 속 힐링 주거단지로 탈바꿈
- 북한산 경관 보호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 동시 고려, 최고 28m→평균 45m 유연한 높이계획
- 북한산 방향으로 2개의 통경축 확보, 테라스하우스 등 구릉지 특성을 활용한 주거유형 배치
- 인수봉로~삼양로 동·서간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 교통 여건 획기적 개선

☐ 서울시는 2026년 2월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북구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미아동 791-2882 일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또 수십년간 도시계획 규제로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로 인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은 곳이다.

○ 삼양사거리역(지구 중심), 숭실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대상지는 주변에 미아뉴타운, 벽산아파트 등 25층 내외의 고층 아파트들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m(완화시 28m) 고도제한에 묶여있어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 과거 ‘소나무 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 이번 미아동 791-2882 일대 정비계획(안) 수정가결됨에 따라, 북한산 경관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 높이 및 경관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대상지에서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 구간을 확보하고, 평균 45m 범위 내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10~15층), 역세권 인접부는 최고 25층으로 계획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의 실현성을 높였다.

- 경관 계획상 조망점(송중초 앞 교차로~삼양사거리)과 조망가로(삼양로)에서 북한산 방향으로 통경축 확보, 장대한 입면 지양, 가로변 저층 배치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으로 북한산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 북한산 경관관리 원칙 준수를 바탕으로 ‘신(新)고도지구 구상’에 따라 최고 28m(9층)까지만 가능했던 높이도 평균 45m(평균 15층)로 가능해졌다.

- 고저차가 57m에 이르는 지형의 단차 극복을 위해 테라스하우스 등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을 도입했으며, 북한산과 이어지는 공원, 녹지,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도심 속의 녹색 주거단지를 실현했다.

- 지형 단차가 발생하는 곳에 테라스하우스, 주민편의시설, 상가, 데크 주차장 등을 배치해 경사지를 적극 활용했다.
- 유연한 높이계획 적용에 따라 넓어진 외부공간은 적극적인 조경·식재 계획을 통해 녹색단지로 조성했다.

- 급격한 경사로 인해 보행과 차량 소통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지역에 일상적 보행이 가능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인수봉로와 삼양로를 잇는 동·서간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삼양초 후문)~(솔샘로)까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을 따라 이어지는 경관보행가로는 단지 내 동선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단지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높였다.
 - 단지 진·출입 및 삼양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인수봉로, 삼양로를 잇는 동·서간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입체적 도로계획을 통해 공동주택 획지 간 통합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용적률 249.9%, 공동주택 2,670세대(임대 331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며, 최고 25층(평균 45m) 이하로 북한산 국립공원과 어우러지는 도심 속 힐링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 서울시는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환경 정비의 기회마저 없었던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후 건축·교통·교육·환경 등 통합심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위치도 및 조감도(예시)

□ 위치도



□ 조감도(예시)



2026. 2. 9.(월)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2월 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02-2133-719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재개발관리팀장

장도영

02-2133-7186

장안동 일대 녹도 계획 품은 그린 커뮤니티 주거단지 조성

- 장안동 134-15번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안) ‘수정가결’
- 답십리 공원~중랑천을 잇는 공공보행통로 및 그린웨이 조성 으로 녹지·보행 중심 단지 구축
- 사업성보장계수 통해 허용용적률 234%에서 244%로 완화, 최고 36층, 1,754세대 규모 공급 추진

- ☐ 서울시는 2026년 2월 6일 「제1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안동 134-15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하였다.
- ☐ 동대문구 장안동 134-15번지 일대는 서측 배봉산과 동측 중랑천, 용마산 등 자연 자원이 풍부하며, 북측으로는 경전철 면목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량리, 전농·답십리, 이문·휘경 생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정체되어 왔던 지역으로, 이번 결정을 통해 장안동 생활권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1.5)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이 기존 234%에서 244%로 완화되었고, 계획용적률 298%로 최고 층수 36층, 총 1,754세대(공공주택 391세대 포함)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 사업성보정계수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최대 2.0 가능)

- 또한, 도시여건변화와 교통·경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간계획을 수립하였다.
- 한천로~중랑천을 잇는 동-서 보행흐름을 고려하여 대상지 인근 공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소공원, 문화공원을 계획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주변 공원과 연계되는 순환형 그린웨이 체계를 구축한다.
 - 또한,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답십리공원~장이소공원~용마산으로 이어지는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할 예정이다.
 - 단지 중앙은 통경을 고려한 36층 내외 고층 주동을 배치하고, 답십리로 및 한천로 36길 등 주요 가로변은 중저층으로 계획하여 유연한 스카이라인 형성한다.
-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이 침체되어 있던 장안동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합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1부.

조감도 1부. 끝

□ 위치도 (동대문구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 조감도(예시)



2026. 2. 9.(월)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2월 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2133-719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주거사업협력센터장

오종규

2133-7856

신통기획 100번 구역...쌍문2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쌍문2구역 용적률 299.83%, 최고층수 39층으로 1,919세대 주택 공급
- 2017년 정비구역 해제 이후 용도지역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성 개선
- 역사·문화·교육 자원 활용한 특화 단지...함석헌기념관 연계 문화공원·안전 통학로 조성

- ☐ 서울시는 2월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 노후 주거지인 도봉구 쌍문동 일대가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용적률 299.83%으로 공동주택 1,919세대(임대주택 325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 ☐ 쌍문2구역은 과거 2017년 열악한 사업성으로 인해 정비구역이 해제됐던 곳으로, 신통기획을 통해 해제 당시 용적률 240%를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2.0배)를 적용해 용적률 300%로 상향했다. 또한 최고 층수도 과거 18층에서 39층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100번째 신속통합기획 구역, 지역 정체성 살린 주거단지로>

- 쌍문2구역은 100번째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구역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 가로망 체계를 기준으로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정비 사업 실현 후에도 인근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했다. 단지 내 보행동선을 추가 계획해 주변 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된다.

<함석헌기념관 연계 문화공원·안전 통학로 조성>

- 시는 구역 내 존치시설이자 서울미래유산인 ‘함석헌기념관’과 연계한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주거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 초·중·고교 교육자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한다. 구역 내 공공보행통로와 노해로변 보행로를 확보해 통학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구역 내 존치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용주차장의 주차면을 확충했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쌍문동 일대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주거단지로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위치도, 조감도 1부. 끝

□ 위치도 (도봉구 쌍문동 81번지 일대)



□ 조감도 예시(안)



2026. 2. 9.(월)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2월 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02-2133-713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재건축사업팀장

엄태용

02-2133-7296

반포미도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정가결”

- 주택 559세대(공공주택 87세대 포함) 공급, 용적률 300%, 최고 46층 계획
-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고속터미널역으로 보행 접근성 강화
- 인근 재건축사업 및 복합개발사업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

☐ 서초구 반포동 60-5번지에 위치한 반포미도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최고 46층, 55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새롭게 탄생한다. 서울시는 2026년 2월 6일(금)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반포미도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고속터미널역 트리플역세권(3·7·9호선)과 서리풀공원 옆에 위치한 반포미도2차아파트는 1989년 준공된 아파트 3개동, 435세대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299.97% 이하, 46층 이하, 4개동 559세대(공공주택 87세대 포함) 규모의 주택단지로 재

정비된다.

- 고속터미널역 이용자를 위해 서초구에서 설치한 엘리베이터와 보행데크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폭 5m) 계획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고속터미널역으로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동측 반포미도1차아파트 재건축 단지와 함께 도로(고무래로)를 4m 확폭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반포미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및 현재 추진 중인 북측 고속터미널부지 복합개발사업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하였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사업 통합심의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도시 경관 및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1부. 끝.

□ 위치도 (서초구 반포동 60-5번지)



2026. 2. 9.(월)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2월 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2133-713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재건축계획팀장

임동수

2133-7140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수변 경관 1,324세대 공급… 통합재건축 본격화

-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으로 신청 1년 만에 2월 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개별 추진→통합재건축 전환, 최고 49층 1,324세대 양재천변 어우러진 단지 공급
- 영동대로변 공유오피스·돌봄센터 등 개방시설 배치, 인근 4,000 m^2 규모 공원 조성

☐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으로 통합 재건축되며, 최고 49층 1,324세대 규모의 수변 고급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 서울시는 2월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치동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는 각각 1984년, 1983년에 준공된 노후 단지로 학여울역 북측,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서측에 위치해 있다. 당초 두 단지가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합리적인 단지 계획을 위해 통합재건축으로 전환됐다.

<수변 조화이론 주거단지 조성, 주민 편의시설·보행환경 개선>

- 이번 계획으로 두 단지는 최고 49층 1,324세대(임대 159세대 포함) 규모로 탄천, 양재천 수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시설과 보행환경도 대폭 확충된다. 영동대로변에 공유오피스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시설을 배치해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영동대로변에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 특히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연면적 약 4,000 m^2 규모 공원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결과를 반영해 통합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개별 추진 대비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합리적인 단지 배치와 공공기여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는 합리적인 단지 계획을 위해 통합재건축으로 전환한 사례로 1,324세대 공급이 본격화되며 주변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위치도 등 1부. 끝

